

## ■ 빌립보서 3:13-14

코로나19로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이 멈춰버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설 명절때는 코로나19가 다른 바이러스들처럼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코로나 19 이전에 생각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기다리거나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판단이 요구되면서도, 선부른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지라 그 누구도 앞의 일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앞일이 막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길,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고, 앞의 일을 예견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감옥에서 생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죽을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의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남들이 보기엔 소망이 없고, 막막하며, 답답한 현실에서도 그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께 두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밖에서 이전과 같은 활발한 선교활동을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는 자신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여,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 소망 없고, 답답하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를 막막하게 할만한 일들을 우리가 숨쉬는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해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할 주님을 더욱 굳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설 가정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설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설날 가정예배

※ 예배 전에 한 사람씩 올 한해 하나님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예배의부름** ..... **말 은 이**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550장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 같 이**

-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 4 땅들이 바다야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경봉독** ..... **빌립보서 3:13-14** ..... **다 같 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설 교** .....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사람** ..... **말 은 이**

**기 도** ..... **설 교 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다같이 기도한 뒤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에서의 답답함과 막막함으로 시선을 빼앗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막막하게 하여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가실 것을 믿으며, 2021년 한 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가족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벗어나려 할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온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559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같 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